

2020. 02. 22. (토)

담당 교수: 송 운 학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문3]

㉠과부나 홀아비가 개가하고 재취하는 것은 생리적으로나 가정 생활로나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또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개가와 재취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승인하면서도 어떤 과부나 환부(鰥夫)가 사랑하는 옛 짝을 위하여 개가나 속현*의 길을 버리고 일생을 마치는 그 절개에 대하여 찬탄하는 것을 또한 잊지 않는다. 보통 사람이 능히 하기 어려운 일을 했대서만이 아니라 자연으로서 인간의 본능(本能)을 이성(理性)과 의지로써 초극한 그 정신의 높이를 보기 때문이다. 정조의 고귀성이 여기에 있다. 지조도 마찬가지다. 자기의 사상과 신념과 양심과 주체는 일찌감치 집어던지고 시세에 따라 아무 권력이나 바꾸어 붙어서 구복의 걱정이나 덜고 명리의 세도에 참여하여 꺼덕대는 것이 자연한 일이지 못나게 쪼를 부린다고 굶주리고 얻어맞고 짓밟히는 것처럼 부자연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면 얼핏 들어 우선 말은 되는 것 같다.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다가 가을 바람만 불면 단팔죽 장사로 간판을 남 먼저 바꾸는 것을 누가 욕하겠는가. 장사꾼, 기술자, 사무원의 생활 방도는 이 길이 오히려 정도(正道)이기도 하다. 오늘의 변절자도 자기를 이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자처한다면 별문제다. 그러나 더러운 변절의 정당화를 위한 엄청난 공언(公言)을 늘어놓은 것은 분반(噴飯)*할 일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먼 줄 알아서는 안 된다. 백주 대로*에 돌아앉아 불기 짝을 까고 대변을 보는 격이라면 점잖지 못한 표현이라 할 것인가.

지조를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자기의 신념에 어긋날 때면 목숨을 걸어 항거하여 타협하지 않고 부정과 불의한 권력 앞에는 최저의 생활, 최악의 곤욕을 무릅쓸 각오가 없으면 선불리 지조를 입에 담아서 안 된다. 정신의 자존 자시(自尊自恃)를 위해서는 자학(自虐)과도 같은 생활을 견디는 힘이 없이는 지조는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조의 매운 향기를 지닌 분들은 심한 고집과 기벽(奇癖)까지도 지녔던 것이다. ㉡신단재(申丹齋) 선생은 망명 생활 중 추운 겨울에 세수를 하는데 곳곳이 앉아서 두 손으로 물을 움켜다 얼굴을 씻기 때문에 찬물이 모두 소매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한다. 어떤 제자가 그 까닭을 물으매, 내 동서남북 어느 곳에도 머리 숙일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무서운 지조를 지킨 분의 한 분인 한용운 선생의 지조가 낳은 기벽의 일화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가 지도자와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지조는 이토록 삼엄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신 뒤에는 당신들을 주시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위의(威儀)와 정치적 생명을 위하여 좀 더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라는 충고 정도다. “한때의 적막을 받을지언정 만고에 처량한 이름이 되지 말라”라는 채근담(菜根譚)의 한 구절을 보내고 싶은 심정이란 것이다. 끝까지 참고 견딜 힘도 없으면서 뜻있는 야당의 투사를 가장함으로써 권력의 미끼를 기다리다가 후딱 넘어가는 교지(狡智)*를 버리라는 말이다. 욕인(辱人)으로 출세의 바탕을 삼고 항거로써 최대의 아첨을 일삼는 본색을 탄로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충언의 근원을 캐면 그 바닥에는 변절하지 말라, 지조의 힘을 기르라는 뜻이 깃들

이어 있다.

변절이란 무엇인가? 절개를 바꾸는 것, 곧 자기가 심신으로 이미 신념하고 표방했던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철이 들어서 세워 놓은 주체의 자세를 뒤집는 것은 모두 다 넓은 의미의 변절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욕하는 변절은 개과천선(改過遷善)의 변절이 아니고 좋고 바른 데서 나쁜 방향으로 바꾸는 변절을 변절이라 한다.

일제(日帝) 때 경찰에 관계하다 독립운동으로 바꾼 이가 있거니와 그런 분을 변절이라고 욕하진 않았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파(親日派)로 전향한 이는 변절자로 욕하였다. 권력에 붙어 벼슬하다가 ㉢야당이 된 이도 있다. 지조에 있어 완전히 깨끗하다고는 못하겠지만 이들에게도 변절자의 비난은 돌아가지 않는다.

나머지 하나 혐의의 변절자, 비난 불신의 대상이 되는 변절자는 야당 전선에서 이탈하여 권력에 몸을 파는 변절자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이름을 역력히 기억할 수 있다.

자기 신념으로 일관한 사람은 변절자가 아니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의 치욕에 김상헌이 찢은 항서(降書)를 도로 주워 모은 주화파(主和派) 최명길은 당시 민족정기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으나, 심양의 감옥에 김상헌과 같이 갇혀 오해를 풀었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진 얘기다.

최명길은 변절의 사(士)가 아니요 남다른 신념이 한층 강했던 이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누가 박종양, 문명기 등 허다한 친일파를 변절자라고 욕했는가. 그 사람들은 변절의 비난을 받기 이하의 더러운 친일파로 타기(唾棄)*되기는 하였지만 변절자는 아니다.

민족 전체의 일을 위하여 몸소 치욕을 무릅쓴 업적이 있을 때는 변절자로 욕하지 않는다. 앞에 든 최명길도 그런 범주에 들거니와, 일제 말기 말살되는 국어의 명맥을 붙들고 살렸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민족 해방의 날을 위한 유일의 준비가 되었던 <맞춤법 통일안>, <표준말모음>, <큰사전>을 편찬한 ㉣‘조선어학회’가 ‘국민총력연맹조선어학회지부’의 간판을 붙인 것을 욕하는 사람은 없었다.

- 조지훈, ‘지조론(志操論)’ -

*속현: 거문고와 비파의 끊어진 줄을 다시 잇는다는 뜻으로, 아내를 여윈 뒤 다시 새장가를 드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재취.

*분반(噴飯): 입속에 있는 밥을 내뿜는다는 뜻으로, 참을 수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이르는 말.

*백주 대로: 대낮의 큰길.

*교지(狡智): 교활한 재주와 꾀.

*타기(唾棄): 침을 뱉듯이 버린다는 뜻으로, 업신여기거나 아주 더럽게 생각하여 돌아보지 않고 버림을 이르는 말.

【문1】 윗글의 글쓴이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 ① 잘못된 신념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도 변절의 일종이다.
- ② 변절 행위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 ③ 지도자와 정치인에게 바라는 지조는 장사꾼의 생활과는 다른 수준이다.
- ④ 부정 앞에서 최악의 곤욕을 무릅쓸 각오가 없어도 지조는 지켜질 수 있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2월 22일 법원직 9급 ②책형

2020. 02. 22. (토)

담당 교수: 송 운 학



【문2】 <보기>와 윗글의 ㉠~㉣을 견주어 보았을 때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마귀 눈비 마조 희는 듯 검노미라.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오랴.
님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고칠 줄이 이시랴.

- 박팽년 -

- ① ‘눈비’와 ㉠은 자신의 주체적 신념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변절자라고 할 수 있다.
- ②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야광명월’과 ㉡은 지조를 지켰다고 할 수 있다.
- ③ ‘가마귀’와 ㉢은 절개를 바꾼 듯 보이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으므로 지조를 지켰다고 할 수 있다.
- ④ ‘일편단심’하지 않고 외부 상황 때문에 절개를 바꾼 ㉣은 변절자라고 할 수 있다.

【문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문자답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③ 비교와 대조를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인용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문4~문5]

민주주의, 특히 대중 민주주의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이후의 영국 민주주의는 귀족이나 특정 신분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체제였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중 민주주의, 즉 모든 계층의 성인들이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체제는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미국에서조차도 20세기 초에야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서 제대로 된 대중 민주주의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유럽의 본격적인 민주주의 도입도 19세기 말에야 시작되었고,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각국의 대중 민주주의의 도입은 이보다 훨씬 더 늦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 자본주의를 ‘개인 소유권의 인정’이라고 본다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로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왕이 국가의 모든 자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절대 군주주의 시대에도 상업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상인 계급이 존재했다. 그러나 보통 근대 자본주의의 시작은 1776년으로 간주된다. 이 해는 미국이 독립하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 때이다. 아나톨 칼레츠키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 4.0”에서 대중 민주주의(이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제대로 결합하여 발전을 서로 도와 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 혁

명 이후, 식민지 경영 시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등을 거쳐, 지금은 세계 수많은 나라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한 정치·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체제의 결합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레스터 서로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설파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적절한 권력의 분배에 대해 매우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 하나는 ‘1인 1표’라는 정치권력의 완전한 분배가 좋다고 믿는 반면, 다른 하나는 경제적 비적격자를 몰아내어 경제적으로 멸종시키는 것이 경제적 적격자의 의무라고 믿는다. ‘적자생존’과 (구매력상의)불평등이 자본주의적 효율성의 모든 것이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어울리기 어려운 정치 체제(민주주의)와 경제 체제(자본주의)가 어떻게 잘 결합하고 상호 작용을 하면서 19세기 이후 크게 번영을 이루어 왔을까? 레스터 서로는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시장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더 평등한 소득 분배를 이루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는다.

“역사적으로 시장 경제들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제적 평등을 창출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평등을 촉진하고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칼레츠키는 이와 비슷하지만 더 적극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궁합이 잘 맞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민주주의의 도움을 받아 경제 환경에 맞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 왔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덕분에 자본주의는 그 시스템과 제도가 진화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자본주의는 구부러지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는다.”

- 김경원·김준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호 보완’ -

【문4】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완벽한 형태의 대중 민주주의는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 ② 현재 소수의 나라만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한 정치·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
- ③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 그 해에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통 여겨진다.
- ④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권력의 분배에 대해 결국 같은 지향점을 가지기 때문에 잘 결합할 수 있었다.

【문5】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2월 22일 법원직 9급 ②책형

2020. 02. 22. (토)

담당 교수: 송 운 학



- ②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충돌하는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③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④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두 체제가 결합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문6~문7]

(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니 산(山) 깊은 금덩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섬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쟁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女僧)」 -

(나)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동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건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 나희덕, 「못 위의 잠」 -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뿔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광 광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은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문6】 <보기>는 시의 감상과 수용을 위한 학습 목표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나), (다)를 해석할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이해한다.
- ㄴ. 시상 전개 과정을 파악하며 이해한다.
- ㄷ. 시의 성격과 관련하여 어조를 살펴본다.
- ㄹ. 시에서 다룬 의미와 가치를 내면화한다.

① (나)- ㄱ: ‘못’과 ‘반쪽 난 달빛’은 ‘고달픈 삶’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2020. 02. 22. (토)

담당 교수: 송 운 학



② (나)- ㄴ: '뭇 위에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는 어린 시절 화자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한다.

③ (다)- ㄷ: 음성 상징어인 '꽝 꽝'과 말줄임표의 사용에서 나약한 인간에 대한 연민의 어조가 드러난다.

④ (다)- ㄹ: '얼어붙은 잔등'으로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의 모습에 한없는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문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사람이, (다)는 사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 ② (가)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가)와 (다)에는 모두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잘 드러나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화자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8~문9]

(가)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 김수영, 「풀」 -

(나)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갈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애편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 네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靑山)이 좋아라. 훨훨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陽地)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취범을 따라 취범을 따라, 취범을 만나면 취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위어이 위어이 모두 불러 한 자리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박두진, 「해」 -

【문8】 ㉠과 ㉡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과 ㉡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 시어다.
- ② ㉠과 ㉡은 화자가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의인화된 대상이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성찰하게 만든다.
- ④ ㉡은 ㉠과 달리 화자의 부정적 현실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문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태도 변화가 드러난다.
- ② 대립적 의미의 시어들을 활용하여 화자의 생각이 잘 드러난다.
- ③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가 소망하는 바가 드러난다.
- ④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

【문10】 다음 시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2020. 02. 22. (토)

담당 교수: 송 운 학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해 시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 ②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드러낸다.
- ③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의 대립을 통해 시적 의미를 구체화한다.
- ④ 반성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조를 통해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문11~문14]

[앞부분의 줄거리] 북곽 선생(北郭先生)이라는 명망이 높은 선비가 열녀로 칭송받는 젊은 과부인 동리자의 방에서 정을 통하려 했다. 이때 과부의 다섯 아들이 북곽 선생을 여우로 의심하여 몽둥이를 들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에 다섯 아들이 함께 어머니의 방을 에워싸고는 안으로 들이닥쳤다. 북곽 선생은 깜짝 놀라 부리나케 내뺄면서 그 와중에도 행여 남들이 자신을 알아보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들어 목에다 얹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웃으며 문을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그렇게 달아나다가 별판에 파 놓은 똥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똥이 가득 찬 구덩이 속에서 버둥거리며 무언가를 붙잡고 간신히 올라가 목을 내밀어 살펴보니, 범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이 이 맛살을 찢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막은 채 얼굴을 외면하고

말한다.

㉠“아이구! 그 선비, 냄새가 참 구리기도 하구나.”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 나와 세 번 절하고, 다시 꿇어앉아서 아뢴다.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 지극합니다. 대인(大人)은 그 변화를 본받습니다. 제왕(帝王) 된 자는 그 걸음걸이를 배웁니다. 남의 아들 되는 이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그 명성은 신룡(神龍)과 나란하여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다른 한 분은 구름을 만드십니다. 이 몸은 천한 신하로, 감히 범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범이 꾸짖으며 답한다.

“에잇! 가까이 다가오지 말렸다. 전에 내 듣기로 유(儒)*란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럴구나. 네가 평소에는 세상의 온갖 나쁜 이름을 끌어모아 제멋대로 내게 갖다 붙이더니만, 지금은 서둘러 면전에서 아침을 늘어놓으니 그 따위 말을 대체 누가 믿겠느냐?

천하의 이치는 하나일 따름이니, 범이 정말 악하다면 인간의 본성 또한 악할 것이요,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면 범의 본성 또한 착한 것이다. 네놈들이 하는 말은 모두 오상(五常)*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하고 권장하는 것은 늘 사강(四綱)*에 있다. 그렇지만 사람 사는 동네에 코가 베이거나 발이 잘리거나 얼굴에 문신이 새겨진 채 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륜(五倫)을 어긴 자들이다. 이들을 잡아들이고 벌하기 위해 제아무리 오랏줄이나 도끼, 톱 등을 써 대도 인간의 악행은 당최 그칠 줄을 모른다. 밧줄이나 먹바늘, 도끼나 톱 따위가 황행하니, 악행이 그칠 리가 없다. ㉡범의 세상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없는데, 이로써 보면 범의 본성이 인간보다 더 어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중략>

북곽 선생은 자리를 옮겨 부복(俯伏)해서 머리를 새삼 조아리고 아뢰었다.

“맹자(孟子)에 일렸으되 ‘비록 악인(惡人)이라도 목욕재계하면 상제(上帝)를 섬길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토의 천신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웁니다.”

북곽 선생이 숨을 죽이고 명령을 기다렸으나 오랫동안 아무 동정이 없기에 참으로 황공해서 절하고 조아리다가 머리를 들어 우러러보니, 이미 먼동이 터 주위가 밝아 오는데 범은 간 곳이 없었다. 그때 새벽 일찍 밭 갈러 나온 농부가 있었다. ㉢“선생님, 이른 새벽에 들판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북곽 선생은 엄숙히 말했다.

㉣“성현(聖賢)의 말씀에 ‘하늘이 높다 해도 머리를 아니 굽힐 수 없고, 땅이 두텁다 해도 조심스럽게 밟지 않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 박지원, ‘호질(虎叱)’ -

*유(儒): 선비.

*유(諛): 아침함.

*오상(五常):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오행[오교(五敎)나 오륜(五倫)을 가리키기도 함.]

*사강(四綱): 사람을 규제하는 네 가지 도덕인 예(禮), 의(義), 염(廉), 치(恥).

2020. 02. 22. (토)

담당 교수: 송 운 학



【문1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은 인간이 말로는 선을 권하지만 악을 일삼는 자가 많다고 주장한다.
- ② 북곽 선생은 남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 괴이한 모습으로 도망쳤다.
- ③ 범은 평소와 다르게 아침하는 북곽 선생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④ 북곽 선생은 인간의 본성과 범의 본성을 비교하며 범에게 목숨을 구걸했다.

【문1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 ③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의인화를 통해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문13】 윗글의 ‘북곽 선생’에 대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람들의 칭송처럼 높은 학식과 고매한 인품을 가진 동량지재(棟梁之材)한 인물이군.
- ② 위기 상황에서도 동리자와의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천의무봉(天衣無縫)한 인물이군.
- ③ 평판과 다르게 실상은 부도덕하며 위선적인 것을 보니 양두구육(羊頭狗肉)한 인물이군.
- ④ 범의 꾸짖음에 양반 계급의 허위와 부도덕성을 반성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한 인물이군.

【문1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 본심을 숨기고자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자랑거리를 내세우며 상대가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
- ③ ㉢: 자신을 낮추며 상대를 흠모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상황이 바뀌자 비굴함을 숨기기 위해 허세를 부리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5~문17]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搭)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나)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발아래 구부리고 옆드린 작고 큰 산들이며
떨어져 나갈까 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언덕과 골짜기에 바짝 달라붙은 마을들이며
다만 무릎까치라도 다가오고 싶어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를 내려다보니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
그러다 속초에 내려와 하룻밤을 묵으며
중앙 시장 바닥에서 다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노령 노래 안주 해서 소주도 마시고
피난민 신세타령도 듣고

㉣

다음 날엔 원통으로 와서 뒷골목엘 들어가
지린내 땀내도 말고 악다구니도 듣고
㉡ 싸구려 하숙에서 마늘 장수와 실랑이도 하고
젊은 군인 부부 사랑싸움질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니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다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신경림, ‘장자(莊子)를 빌려’ -

【문15】 (가)의 ㉣를 다음 <조건>에 맞춰 새롭게 바꾸려 할 때 가장 옳은 것은?

<조건>

- ◆ 처음과 동일한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한다.
- ◆ 어조나 표현 기법을 그대로 유지한다.

2020. 02. 22. (토)

담당 교수: 송 운 학



- ① 깊은 계곡에서 아름다운 이슬을 머금고 있는 이름 없는 풀꽃들은 누구의 미소입니까.
② 강렬한 여름 햇살 아래 넓디넓은 가지를 드리운 느티나무의 한 없는 품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③ 넓고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며 시시각각 오묘한 표정을 짓는 저 흰구름은 누구의 그림입니까.
④ 하늘에 달을 듯이 우뚝 솟은 보리수에서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들려오는 저 신비로운 소리는 누구의 숨결입니까.

【문1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 다양한 자연의 현상을 통해 임의 존재를 형상화함으로써 임에 대한 화자의 외경심과 신비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 임이 부재하는 암담한 시대 현실을 지키기 위한 자신 희생의 정신과 진리를 얻기 위한 구도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 산 아래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탈속적인 공간에 대한 동경을 그려내고 있다.
④ ㉣: 우리들의 삶이 그 본질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문1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② (가)에는 종교적인 색채와 명상적이고 관념적인 분위기가 드러나 있다.
③ (나)에는 화자가 구체적 경험을 통해 얻은, 삶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다.
④ (가)와 달리, (나)는 구도(求道)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 내고 있다.

【문18】 <보기1>의 내용을 참고할 때, <보기2>에서 관형사를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1>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의 뜻을 분명하게 제한하는 품사이다. 특히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면서도 형태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관형사는 용언이 아니므로 어미를 가지지 않음은 물론 보조사를 포함한 어떤 조사와도 결합하지 않는다.

<보기2>

- ㉠: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있어.
㉢: 빠른 일처리가 무척 맘에 드는군.
㉣: 눈앞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문19~문21]

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법령을 정비하여 물샷틈없이 잘해 나가는 정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예의염치(禮義廉恥)와 효제충신(孝悌忠信) 등을 체득 실천하도록 잘 가르쳐 백성들이 나랏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조하게 하는 것이 나라 다스리는 데는 더욱 좋다. 법령을 정비해서 물샷틈없이 잘해 나가는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법령을 어기게 될까 겁이 나서 위정자를 두려워하고, 그와 대조적으로 예의염치와 효제충신 등을 체득 실천하도록 잘 가르쳐 나가는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그 인후(仁厚)함에 감복하여 위정자를 사랑한다. 법령을 잘 다루어 나가는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납세를 게을리할 수 없게 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거두어들이는 데 성과를 올리게 되고, 백성을 잘 가르쳐 나가는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좋아하여 마음으로 따르게 하는 성과를 올리게 한다.”

- 진심장구 상(盡心章句上)에서 -

제자인 도응(桃應)이 맹자께 이런 까다로운 질문을 하였다.

“순(舜)이 천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밑에 고요[皋陶, 순임금의 신하로 법을 세우고, 형벌을 제정하였으며 옥(獄)을 만들었다고 한다.]가 사사(士師, 고대 중국에서 법령과 형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재판관)로 있을 때, 순의 부친 고수가 살인을 했다면 고요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맹자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간단하다. 살인죄를 범한 고수를 체포할 따름이지, 그 밖에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그러자 도응은 맹자께 따져 물었다.

“그렇다면 순은 천자의 위(位)에 앉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부친의 체포를 금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순이라 한들 어떻게 고요가 자기 부친 고수를 체포하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금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요는 그가 전해 받은 대법(大法)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순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순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자기가 차지했던 천하를 헌 쟁신 버리듯 버리고 자기 부친인 고수를 등에 업고 도망쳐 멀리 바닷가로 피해 가 살며, 죽을 때까지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지난날에 차지했던 천하 같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릴 것이다.”

- 진심장구 상(盡心章句上)에서 -

2020. 02. 22. (토)

담당 교수: 송 운 학



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라에는 백성이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토지와 곡물의 신이 그 다음으로 귀중하며, 임금도 사실상 그 비중이 가장 가볍다. 따라서 발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 그들이 좋아하게 되면 천하를 통치하는 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천자의 마음에 들어 그가 좋아하게 되면 한 나라의 제후가 되고, 한 나라의 제후의 마음에 들어 그가 좋아하게 되면 그 나라의 대부가 되는 것이다.”

- 진심장구 하(盡心章句下)에서 -

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인자하지 않고서 한 나라를 얻어 제후가 된 자는 있었지만, 인자하지 않고서 온 천하를 얻어 천자가 된 자는 본 적이 없다.”

- 진심장구 하(盡心章句下)에서 -

선왕은 물었다.

“탕은 걸왕의 신하였고 무왕은 주왕의 신하였는데, 이들과 같이 신하인 자가 자기 임금을 죽여도 좋습니까?”

그러자 맹자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신하로서 자기 임금을 죽인다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도한 짓을 해서 인(仁)을 손상시키는 것을 적(賊), 즉 흉포하다고 하고, 잔인한 짓을 해서 의(義)를 손상시키려는 것을 잔(殘), 즉 잔학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흉포하고 잔학한 인간은 이미 천하 만민의 부모 노릇을 하는 천자가 아니고 한 명의 단순한 사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한 사내인 주(紂)를 죽였다는 말은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 무왕이 자기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아직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 양혜왕장구 하(梁惠王章句下)에서 -

【문19】윗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문답과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신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자신의 생각을 순차적으로 밝히고 있다.
- ④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분류하고 있다.

【문20】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맹자의 생각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맹자는 임금이 포악하고 무도하여 백성을 해치는 경우는 통치자로서의 자격과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임금을 벌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② 맹자는 천자의 의무와 자식으로서의 입장을 모두 중시하면서도 만약 두 가지가 상충될 경우 ‘순’처럼 천자의 의무를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③ 맹자는 한 나라에서 천자의 비중이 가장 가볍기 때문에, 무릇 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과 제후, 그리고 대부들의 마음에 모두 들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④ 맹자는 법령을 정비해서 백성들이 위정자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법령 대신 예의엄치와 효제충신 등을 체득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문21】윗글을 읽고 다음 내용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맹자가 생각하는 통치자에게 필요한 덕목	㉠
맹자가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점	㉡

- ① ㉠: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인자한 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② ㉠: 통치자는 백성들을 부모와 같은 태도로 다스려야 한다.
- ③ ㉡: 백성들은 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이므로 그들의 마음을 천자를 정한다.
- ④ ㉡: 백성들은 덕을 베풀어도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 가르쳐야 한다.

【문22】<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보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어근들끼리 만나 새말을 만들기도 하지만, 특정한 뜻을 더하는 접사가 어근 앞에 붙어 새말을 만들기도 한다. 전자의 예로는 어근 ‘뛰다’가 어근 ‘놀다’를 만나 ‘뛰놀다’를 만드는 것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군’이 어근 ‘살’ 앞에 붙어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면서 ‘군살’을 만드는 것을 들 수 있다.

- ① ‘강’은 ‘마르다’ 앞에 붙어 ‘심하게’의 뜻을 더하면서 ‘강마르다’를 만든다.
- ② ‘첫’은 ‘눈’ 앞에 붙어 ‘처음의’의 뜻을 더하면서 ‘첫눈’을 만든다.
- ③ ‘새’는 ‘해’ 앞에 붙어 ‘새로운’의 뜻을 더하면서 ‘새해’를 만든다.
- ④ ‘알’은 ‘보다’ 앞에 붙어 ‘알게’의 뜻을 더하면서 ‘알보다’를 만든다.

2020. 02. 22. (토)

담당 교수: 송 운 학



【문2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우리말의 용언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글을 보고 거기에 담긴 뜻을 헤아려 알다.’의 뜻인 ‘읽다’에서 파생된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는 모두 ‘읽히다’로, 그 형태가 같다.

- 사동사: ‘부하 장수들에게 병서를 읽혔다.’
- 피동사: ‘이 책은 비교적 쉽게 읽힌다.’

이때 ㉠사동사인지, ㉡피동사인지의 구별은 문장에서의 의미와 쓰임을 통해 이루어진다.

- | | ㉠ | ㉡ |
|---|-------------------------|-----------------------------|
| ① | 성탄절에는 교회에서 종을 울렸다. | 형이 장난감을 뺏아 동생을 울렸다. |
| ② | 동생이 새 시계를 내게 보였다. | 멀리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
| ③ | 우리는 난로 앞에서 몸을 녹였다. | 따스한 햇살이 고드름을 서서히 녹였다. |
| ④ | 나는 손에 짐이 들려 문을 열 수가 없다. | 부부 싸움을 한 친구에게 꽃을 들려 집에 보냈다. |

【문24】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보기>

상보 반의어는 양분적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단어가 상호 배타적인 영역을 갖는다. 즉, 상보 반의어는 한 단어의 긍정이 다른 단어의 부정을 함의하는 관계에 있다. 등급 반의어는 두 단어 사이에 등급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두 단어 사이에 중간 상태가 있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 쪽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다른 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관계 반의어는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다. ‘남편’과 ‘아내’를 예로 들면 두 단어 사이에서 x가 y의 남편이면 y가 x의 아내가 되는 상대적 관계가 있으며 두 단어는 어떤 기준을 사이에 두고 대칭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관계 반의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 | |
|-----------|-----------|
| ① 사다 - 팔다 | ② 부모 - 자식 |
| ③ 동쪽 - 서쪽 | ④ 있다 - 없다 |

【문25】 <보기>의 자료를 읽고 탐구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맞춤법 규정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갈쭈이, 꿀꿀이 등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개구리, 귀뚜라미 등

【해설】

접미사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란, 곧 동사나 형용사로 파생될 수 있는 어근을 말한다. 예컨대 (눈을) ‘깜짝깜짝하다, 깜짝거리다, 깜짝이다, (눈)깜짝이’와 같이 나타나는 형식에 있어서, 실질 형태소인 어근 ‘깜짝-’의 형태를 고정시킴으로써, 그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다.

- ① ‘동그라미’ 같은 말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 예에 추가할 수 있겠어.
- ② ‘빠죽거리다’는 말이 있으므로 ‘빠죽기’가 아니라, ‘빠죽이’라고 적어야겠군.
- ③ ‘매미’, ‘빠꾸기’를 ‘맴이’, ‘빠꼭이’라고 적지 않는 것은 붙임 규정에 따른 것이군.
- ④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접미사가 붙은 말로 ‘부스르기’를 들 수 있겠어.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2월 22일 법원직 9급 ②책형

2020. 02. 22. (토)

담당 교수: 송 운 학

정답 및 해설

※[문1~3]출전: 조지훈, 「지조론(志操論) -변절자(變節者)를 위하여」

- 해제: 1960년에 발표된 이 수필은 '변절자를 위하여'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 당시 우리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이 변절을 일삼던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지사적 풍모를 갖출 것을 주문하기 위한 글이다. 단정적인 어조와 강건한 문체가 특징적인 이 글은 지조와 변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서로 비교하거나 대조함으로써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순간의 괴로움이나 가난을 이기지 못해 변절을 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 옳은 길을 걷는다면 용서받을 수 있음을 일러 주고 있다.
- 주제: 지조를 지키는 삶의 가치

01 ③ 비문학-글쓴이의 생각

둘째 단락에서, 장사꾼이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다가 단팔죽 장사로 바꾸는 것은 변절이 아니라 정도(正道)라고 하였다. 그리고 넷째 단락에서 '우리가 지도자와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지조는~'으로 지도자와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지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지도자와 정치인에게 바라는 지조는 장사꾼의 생활과는 다르다.

[오답 풀이]

- 글쓴이는 '변절'이란 '절개를 바꾸는 것, 곧 자기가 심신으로 이미 신념하고 표방했던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주화파 최명길, 친일파 박종양, 문명기를 예로 제시하여 자기 신념으로 일관한 사람은 변절자가 아니라고 했다.
- 사람들이 욕하는 변절은 개과천선(改過遷善)의 변절이 아니라고 했고, 일제(日帝) 때 경찰에 관계하다 독립운동으로 바꾼 분을 변절이라고 욕하진 않았다고 했으므로, 모든 변절 행위가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부정 앞에서 최악의 곤욕을 무릅쓸 각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조를 설명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02 ② 비문학-고시조와 비교

② ㉠의 '신단재(申丹齋) 선생'은 망명생활 중에서 지조를 지킨 분이다. <보기>에서 '야광명월'은 '단종과 충신들'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의 '과부나 홀아비'에 대해 글쓴이는 개가하고 재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변절자가 아니다. <보기>에서 '눈비'는 '계유정란'이나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변절자는 '눈비'가 아니라 '가마귀(세조와 신들)'라 할 수 있다.
- <보기>의 '가마귀'는 눈비를 맞아 흰 듯하지만 본래 검은 존재로서,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간신들이므로 변절자라 할 수 있다. ㉠의 '야당이 된 이'는 뒤에 이어지는 글쓴이의 설명에 의하면, 지조에 있어 완전하게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지조를 지킨 것은 아니다.
- ㉠의 '조선어학회'는 단락의 첫 문장에서 '민족 전체의 일을 위하여 몸소 치욕을 무릅쓴 업적이 있을 때는 변절자로 욕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변절자가 아니다. 즉 이 글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 때 '조선어학회'가 '국민총력연맹 조선어학회지부'의 간판을 붙였던 것은, 말살될 위기에 처한 국어의 명맥을 살리고 민족 해방을 위한 준비를 하려는 본질은 변절하지 않은 채 외부 상황 때문에 외형상의 변절을 시도했을 뿐이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보기> 작품: 박팽년의 '절의가'

- 해제: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유배되자, 단종과의 이별을 추월에 이입시켜 그 슬픔을 노래한 시조이다. 초장과 중장은 '가마귀'와 '야광명월'을 대조시켜 간신과 충신(또는 세조와 단종)의 이미지를 뚜렷이 한 후, 자신의 충절을 종장에 부각시킨 절의가(節義歌)이다.
- 주제: 일편단심(一片丹心)

03 ① 비문학-서술상 특징

① '자문자답'이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형식이다. 윗글에의 6문단에서 '변절이란 무엇인가? 절개를 바꾸는 것, 곧 자기가 심신으로 이미 신념하고 표방했던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다.'라는 부분은 자문자답을 통해 '변절'이란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 글은 지조와 변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당대의 정치가의 변절을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아이스케이크 장사의 예, 신단재 선생과 한용운 선생의 예, 일제 때 경찰에 관계하다 독립운동으로 바꾼 이의 예, 최명길과 조선어학회의 예 등 다양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서로 비교하거나 대조함으로써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 5문단에서, '한때의 적막을 받을지언정 만고에 처량한 이름이 되지 말라.'는 『채근담』의 내용을 인용하여 오늘날 지도자와 정치인에게 지조를 요구하는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4~5]출전: 김경원·김준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호 보완'

- 해제: 이글은 성격이 상반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문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들의 결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 주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상반된 기질이지만 상호보완하며 결합되었다.
- 구성
 - 1문단: 대중 민주주의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음.
 - 2문단: 근대 자본주의의 시작은 1776년으로 간주-지금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한 정치-경제 체제
 - 3문단: 두 체제의 결합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 레스터 서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권력의 분배에 대해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다.
 - ┌ 민주주의: 정치권력의 완전한 분배
 - └ 자본주의: 적자생존과 (구매력상의) 불평등
 - 4문단: 정치 체제(민주주의)와 경제 체제(자본주의)의 결합
 - ┌ 레스터 서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평등한 소득 분배를 이루는 데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
 - └ 칼레츠키의 주장: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궁합이 잘 맞는 제도라고 주장, 자본주의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민주주의의 도움을 받아 경제 환경에 맞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2월 22일 법원직 9급 ②책형

2020. 02. 22. (토)

담당 교수: 송 운 학



04 ③ 비문학-내용 파악

③ 둘째 단락에서, ‘근대 자본주의의 시작은 1776년으로 간주된다. 이 해는 미국이 독립하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 때이다’는 설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첫째 단락에서, ‘모든 계층의 성인들이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체제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미국에서조차도 20세기 초에야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서 제대로 된 대중 민주주의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 민주주의는 19세기가 아니라 20세기 초이다.

② 둘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지금은 세계 수많은 나라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한 정치·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바르지 않은 설명이다.

④ 레스터 서로는 그의 저서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적절한 권력의 분배에 대해 매우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 하나는 ‘1인 1표’라는 정치권력의 완전한 분배가 옳다고 믿는 반면, 다른 하나는 경제적 비적격자를 몰아내어 경제적으로 멸종시키는 것이 경제적 적격자의 의무라고 믿는다. ‘적자생존’과 (구매력상의)불평등이 자본주의적 효율성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권력의 분배에 대해 매우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다.

05 ③ 비문학-서술상 특징

③ 이 글은 성격이 상반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문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들의 결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레스터 서로’, ‘칼레츠키’의 견해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닌 문제점이나 그에 대한 대안을 설명한 글이 아니다.

②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충돌이나 절충,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 않다.

④ 상반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 글로서, 두 체제가 결합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문6~7]현대시 복합 출전

(가) 백석, 「여승(女僧)」

1.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에 힘겨운 삶을 살다가 여승이 된 여인의 기구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아닌 그 순서가 뒤바뀐 역순행적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연은 여승이 된 현재 모습이며, 2~4연은 여승이 되기까지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화자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여인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으며, 농촌이 몰락하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흩어지는 당대의 아픔을 잘 그려내고 있다.

2. 주제: 한 여인의 비극적 삶에서 느끼는 서러움

3. 특징: 역순행적인 것으로서 1연에서는 여승의 현재, 2~4연에서는 여승의 삶의 궤적(軌跡)을 나타낸다.

(나) 나희덕, 「못 위의 잠」

1. 해제: 화자는 못 위에서 꾸벅이며 잠을 자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보며 과거 고단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겉으로는 범주가 다른 두 대상을 그리고 있지만, 제비는 바로 화자의 아버지의 모

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현재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작은 제비집, 갓 태어난 새끼들, 날개로 동지를 덮은 어미, 못 위에서 잠을 자는 제비는 각각 화자의 유년 시절의 좁은 골목길, ‘나’를 포함한 아이 셋, 피곤에 지친 어머니, 한 걸음 늦게 따라오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응되고 있다.

2. 주제: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회상과 연민

3. 특징

① 제비 가족과 실직한 가장을 둔 가족의 비교를 통해 사내의 힘겨움을 강조함.

② 못 위에 앉아 잠자는 제비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했던 아버지의 처지를 중첩시켜 표현

③ 과거의 사건과 경험을 떠올리는 회상적인 어조로 시상 전개

(다)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1. 해제: 이 시는 유년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또한 어린 시절 추위를 막아 주던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성인이 된 화자가 자신의 자식을 돌보며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어머니에게 고백하듯이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강물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리는데,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단단하게 얼어붙어 표면을 이루고 있는 얼음이 마치 아버지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자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온갖 어려움과 추위를 덮어 주고 품어 주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2. 주제: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에 대한 고마움과 간절한 그리움

3. 특징

①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함.

제 예닐곱 살 적 겨울 →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② 자연물의 상태 변화(물-얼음)를 통해 대상의 이미지를 구체화

③ 시상의 마무리: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를 반복하여 부르면서 말줄임표를 활용해 여운을 주고 있다. 이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시인의 고조된 감정을 잘 드러내는 마무리라고 할 수 있다.

06 ③ 현대시-표현상 특징과 함축적 의미

③ 나약한 인간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아버지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

‘꽁꽁 얼어붙은 잔등으로 훑한’을 막고 있는 것은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단단하게 얼어붙어 표면을 이루고 있는 얼음이 마치 어린 시절 추위를 막아 주던 아버지와 같다는 의미이다. 즉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를 반복하여 부르면서 말줄임표를 활용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화자는 못 위에서 꾸벅이며 잠을 자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보며 유년 시절 고단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제비는 바로 화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못’은 실직한 가장인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반쪽 난 달빛’의 창백함은 ‘피곤에 지친 한 여자’ 곧 어머니의 힘겨운 삶을 드러내고 있다.

④ ‘얼어붙은 잔등’으로 ‘하얗게 얼음으로 덮여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자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즉 ‘얼어붙은 잔등’이 ‘어린 물살’을 훑는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모습은 어린 시절 시적 화자를 훑는으로부터 지켜주던 아버지의 모습(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2월 22일 법원직 9급 ②책형

2020. 02. 22. (토)

담당 교수: 송 운 학



07 ③ 현대시-작품의 특징 비교

③ (다)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를 반복하여 부르면서 말줄임표를 활용하여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가)는 일제 강점기에 비극적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가난 때문에 가족을 잃고 여승이 된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시적 대상은 여승이며, (다)에서 화자는 강물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다.
② (가)의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는 부분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불가에 귀의하여 여승이 된 여인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형상화되었다.
④ (나)의 화자는 못 위에서 꾸벅이며 잠을 자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보며 과거 고단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다)는 ‘에닐곱 살 적 겨울’에 추위를 막아 주던 아버지께 대한 경험을 떠올리며 시상이 전개된다.

※[문8~9]현대시 복합 출전

(가) 김수영, 「풀」

- 해제: 이 시는 ‘풀’과 ‘바람’, ‘눅다’와 ‘일어나다’, ‘울다’와 ‘웃다’와 같은 대립적 시어를 통해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 ‘풀’은 ‘민초(民草)’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질긴 생명력을 가진 민중을, ‘바람’은 역사에서 민중을 억압하고 민중을 굴복 시키려 하는 세력을 상징한다. 이 시는 바람으로 인해 누웠던 풀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주체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는 것을 반복과 대구를 통해 노래하고 있다.
- 주제: 민중(民衆)의 끈질긴 생명력
- 특징: 대립적 이미지의 반복

풀	눅다	웃다	빨리
↓	↓	↓	↓
바람	일어나다	울다	늦게

(나) 박두진, 「해」

- 해제: 이 시는 광복 직후인 1946년에 발표되었는데, 밝고 평화로운 세계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해’를 통해 노래하고 있다. 작가는 밝음과 어둠의 대립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동일한 시어와 시구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강렬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밝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
- 표현상 특징
 - 반복과 열거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화함.
 - ‘밝음’과 ‘어둠’의 대립적 구도를 사용함.
- 대립적인 의미구조

해, 청산	⇔ 대조	달밤
•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 • 밝음, 평화, 화합, 공존		• 화자가 거부하는 대상 • 어둠, 절망, 비애

5. 시어의 상징적 의미

해	• 광명, 근원적인 생명력(활기, 원기, 활력), 순수, 정의, 승리
청산	• 생기가 넘치는 장소, 화합과 평화의 장소 • 순수하고 아름다운 장소 • 모든 생명체의 삶의 터전
달밤	• 고통과 절망의 세계 • 일제 강점기 하의 암울한 현실

08 ② 현대시-시어의 함축적 의미

② ㉠의 ‘풀’은 민중, ㉡의 ‘해’는 시적 화자가 간절히 소망하는 대상으로, 모두 화자가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대상이며, 의인화되어 있다.

[오답 풀이]

- ① ㉠의 ‘풀’은 부당한 현실에서 억압받으면서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불의에 저항해 온 민중을 의미한다. ㉡의 ‘해’는 시적 화자가 간절히 소망하는 대상으로, 새로운 탄생과 창조의 근원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시대와 관련해 볼 때 조국의 밝은 미래로 볼 수도 있다.
③ ㉠은 ㉡ 모두 과거 회상이나 성찰과 관계가 없다.
④ ㉠과 ㉡은 모두 부정적 현실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일 뿐, 화자의 부정적 현실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09 ② 현대시-작품의 특징 비교

(가)는 ‘풀’과 ‘바람’, ‘눅다’와 ‘일어나다’, ‘울다’와 ‘웃다’, ‘먼저’와 ‘늦게’와 같은 대립적 시어를 통해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
(나)는 ‘해’와 ‘청산’은 시적 화자가 간절히 소망하는 대상이며, ‘어둠’과 ‘달밤’은 현실의 암울한 상황을 나타내는 대립적 시어이다.

[오답 풀이]

- ① ‘시간의 흐름’도 드러나지 않으며, 화자의 태도 변화도 없다.
③ (가)와 (나) 모두 특정 청자가 드러나지 않으며,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도 아니다.
④ (가)에는 의성어, 의태어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나)에는 ‘이글이글, 뿔뿔, 뿔뿔, 뿔뿔, 뿔뿔’ 등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으며, 의인화된 ‘해’를 예찬하고 있다.

10 ① 현대시-표현상 특징

① 위 시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지식인의 고뇌와 자기 성찰이 독백적 어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시선의 이동’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② 1연의 ‘창(窓)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를 통해 시간적 배경은 ‘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육첩방(六疊房)’은 짚과 돗자리로 만든 다다미 여섯 장을 깔 일본식 방이다. 따라서 공간적 배경은 남의 나라, 즉 일본임을 알 수 있다.
③ 9연의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에서 ‘등불’은 새 시대를 향하는 화자의 노력을 의미한다. 일제 치하의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는 ‘어둠’과 독립,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아침’을 대립적으로 제시하여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④ 이 시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지식인의 고뇌와 자기 성찰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또한 9연의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이란 표현에서 ‘독립’은 반드시 된다는 확신이 드러나 있다. 또한 10연에서 ‘최초의 악수’는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갈등에서 벗어나 화해에 도달하는 상황이므로 미래 지향적임을 알 수 있다.

※[문10]출전: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詩)」

1. 해제: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지식인의 고뇌와 자기 성찰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현실을 바꿀 힘을 가지지 못한 시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며 지난 삶을 반성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좌절하거나 굴복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2월 22일 법원직 9급 ②책형

2020. 02. 22. (토)

담당 교수: 송 운 학



하는 대신 화자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립하고자 하는 결의를 보이며 시상을 마무리 짓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끝없는 좌절과 번민 그리고 무력감을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시인의 사명감을 자각하는 모습을 솔직하고 섬세하게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2. 주제: 어두운 시대적 현실 속에서의 지식인의 고뇌와 자아 성찰

※[문11~14]출전: 박지원, 「호질(虎叱)」

1. 해제: 이 작품은 박지원이 지은 『열하일기(熱河日記)』의 ‘관내정사(關內程史)’속에 수록되어 있는 우의적 풍자 소설이다. 박지원의 다른 작품처럼 이 작품 역시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 정신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북곽 선생과 동리자라는 두 위선적 인물을 통해서 구현된다. 두 인물은 각각 도덕성과 인품이 높은 유학자, 절행(節行)이 뛰어난 과부로 이름났지만 실상은 파렴치하고 위선적인 인물로, 작가는 이를 통해 위선적이고 부패한 양반 계층과 유교적 도덕관이 실종된 사회 풍조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2. 핵심 정리

- 1) 갈래: 한문 소설, 단편 소설, 우화 소설, 풍자 소설
- 2) 성격: 풍자적, 비판적, 우의적
- 3) 주제: 양반의 위선적인 삶과 인간 사회의 부도덕성 비판
- 4) 특징
 - 우의적 수법을 사용함
 - 인물의 행위를 희화화하여 제시함
 -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부정적인 삶에 대해 비판함

3. 전체 줄거리

큰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 결국 청렴한 선비의 고기를 먹기로 하였다. 이때 고을에 도학(道學)으로 명망이 높은 북곽(北郭) 선생이 절행(節行)으로 유명한 동리자(東里子)라는 젊은 과부의 방에 들어가 정을 통하려 하였다. 성(姓)이 다른 그녀의 다섯 아들은 북곽 선생을 여우로 의심하여 몽둥이를 들고 어머니의 방을 습격하고 북곽 선생은 이를 피해 허겁지겁 도망쳐 달아나다가 그만 동구덩이에 빠졌다. 겨우 머리만 내놓고 기어 나오니 이번에는 큰 호랑이가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호랑이는 더러운 선비라 탄식하며 유학자의 위선과 아첨, 이중인격 등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북곽 선생은 정신없이 머리를 조아리고 목숨만 살려 주기를 빌다가 머리를 들어 보니 호랑이는 보이지 않고 아침에 농사일을 하러 가던 농부만 주위에 서서 그의 행동에 대하여 물었다. 그러자 그는 농부에게, 자신의 행동이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조심하는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11 ④ 고전소설-내용 파악

④ ‘인간의 본성과 범의 본성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북곽 선생은 ‘범’ 앞에서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범’을 예찬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범’이 북곽 선생을 꾸짖는 말 중에서 ‘네놈들이 하는 말은 모두 오상(五常)*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하고 권장하는 것은 늘 사강(四綱)*에 있다. 그렇지만 ~인간의 악행은 당최 그칠 줄을 모른다.’를 보면 인간이 말로는 ‘오상(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오행, 오륜)’과 ‘사강(사람을 규제하는 네 가지 도덕인 예(禮), 의(義), 염(廉), 치(恥))’를 말하지만 악을 일삼는 자가 많다고 하고 있다.

② 처음 부분에서 동리자의 다섯 아들이 들이닥쳤을 때, ‘북곽 선생은 깜짝 놀라 부리나케 내뺄면서 그 와중에도 행여 남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들어 목에다 얹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웃으며 문을 뚫

쳐나왔다’는 설명으로 알 수 있다.

③ ‘범’이 북곽 선생을 꾸짖는 말을 보면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모아 망령되게 내게 덮어씌우더니’라는 구절이 있다. 이로 보아 북곽 선생은 범을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은 평소와 다르게 아첨하는 북곽 선생을 꾸짖는 것이다.

12 ① 고전소설-표현상 특징

①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은 드러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범’이 꾸짖는 말에서 ‘유(儒)*란 유(諛)*라 하더니’는 ‘유학자’의 유(儒)와 ‘아첨하다’라는 뜻이 있는 유(諛)의 음이 같음을 이용해 ‘유학자는 아첨을 잘한다’라는 비판을 드러낸 ‘언어유희’이다.

③ 의인화된 ‘범’과 풍자 대상인 북곽 선생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④ ‘범’은 비판적인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의인화된 대상으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양반들을 꾸짖는 역할을 한다. 즉 범이라는 존재를 내세움으로써 작가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13 ③ 고전소설-인물의 성격

③ 북곽 선생은 높은 학식과 고매한 인품을 가진 선비로 추앙받지만 실상은 부도덕하고 위선적인 인물로, 평소에는 위엄 있는 척하다가 위기 상황에서는 비굴함을 보이는 이중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을 뜻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한 인물이다.

① 동량지재(棟樑之材: 棟 마룻대 동/樑 들보 량/之 갈 지/材 재목 재) 기둥이나 들보가 될 만한 훌륭한 인재라는 뜻으로, 한 집이나 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을 의미.

② 천의무봉(天衣無縫: 天 하늘 천/衣 옷 의/無 없을 무/縫 꿰맬 봉) 선녀의 옷에는 바느질한 자리가 없다는 뜻으로, ㉠일부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완전하다. 주로 시가(詩歌)나 문장에 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성격이나 언동 등이 매우 자연스러워 조금도 꾸민 데가 없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어린이와 같이 순진하다.

③ 양두구육(羊頭狗肉: 羊 양 양/頭 머리 두/狗 개 구/肉 고기 육)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것. ㉡ 겉과 속이 서로 다름. ㉢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

[유] 구밀복검(口蜜腹劍), 면중복배(面從腹背), 소리장도(笑裏藏刀), 소중유검(笑中有劍), 양질호피(羊質虎皮), 표리부동(表裏不同)

④ 개과천선(改過遷善: 改 고칠 개/過 지날/지나치다, 잘못, 허물, 나무라다) 과/遷 옮길 천/善 착할 선)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어 착하게 됨.

14 ④ 고전소설-구절의 의미

④ 북곽 선생은 범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목숨만 살려 주기를 빌다가 호랑이는 보이지 않고 농사일을 하러 가던 농부가 그의 행동에 대하여 물었다. 그러자 그는 농부에게, 자신의 행동이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조심하는 것이라고 변명을 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의 이어지는 ‘범’의 꾸짖는 말을 보아 본심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인물인 북곽 선생에 대한 조롱이라 할 수 있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2월 22일 법원직 9급 ②책형

2020. 02. 22. (토)

담당 교수: 송 운 학



② ㉠은 '범'이 악행을 일삼는 인간을 비판한 것이다.

③ ㉡은 농부가 똥을 뒤집어쓰고 비굴한 자세로 엎드려 있는 북관 선생을 발견하고 궁금하여 하는 질문이다. 참고로, 농부는 눈앞에 있는 북관 선생의 모습을 보고도 북관 선생의 이중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물이다.

※[문15~17]현대시 복합 출전

(가) 한용운, 「알 수 없어요」

1. 해제: '알 수 없어요'라는 이 시의 제목은 절대적 존재를 알 수 없다고 고백함과 동시에 그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는 경어체와 의문형의 어구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절대자나 진리에 대한 끝없는 탐구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절대적 존재의 실존은 알 수 없지만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 주제: 임(절대자)에 대한 예찬과 구도 정신(求道精神)

3. 표현상 특징

(1) 산문적 리듬과 경어체를 사용함.

(2) 의문형 문장의 반복[동일한 통사구조]을 통해 주제를 심화하고 시상을 통일함.

(나) 신경림, 「장자를 빌려 - 원통에서」

1. 해제: 이 작품은 산 정상에서 세상을 바라본 관점과 산 아래에서 세상을 직접 경험하여 얻은 관점을 대조시키면서 삶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모색하고 있는 시이다.

2. 주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성찰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 삶에 대한 깨달음)

2) 특징: 산 위에서 바라본 세상과 산 아래에서 경험한 세상의 모습을 대조하여 삶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5 ④ 현대시-조건에 맞게 바꾸어 표현하기

㉠에는 '울리고', '노래'에서 청각적 심상, 경어체와 의문형의 어조로 표현되었다. ㉡에서 '신비로운 소리'는 청각적 심상, '~입니까'에 경어체와 의문형의 어조가 표현되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④는 모두 경어체와 의문형의 어조이다. 그러나 ①의 '미소', ②의 '여름 햇살', ③의 '흰 구름' 등은 시각적 심상이므로, 모두 청각적 심상이 제시되지 않았다.

16 ③ 현대시-표현상 특징

③ 제시 작품에는 탈속적인 공간에 대한 동경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시는 화자가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라본 모습과 속초와 원통에서 바라본 모습을 대조시켜 시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산 위에서 바라볼 때에는 세상이 단순해 보이고 세상을 속속들이 이해할 것도 같았는데, 속초의 중앙 시장과 원통의 뒷골목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사람들의 삶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모순적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우리가 삶을 너무 쉽게 또는 너무 어렵게 바라보아 다른 쪽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경계하는 의도를 전하고 있다. 즉, 삶은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삶의 관점은 두 관점을 모두 취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문장 구조가 '~는 누구의 ~입니까?' 같은 질문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떨어지는 오동잎', '푸른 하늘', '알 수 없는 향기', '작은 시내', '저녁놀' 등의 자연 현상 속에 드러나 보이는 '임'의 존재를 형상화하여 화자의 외경심과 신비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의 이전까지는 의문형으로 끝나는 몇 개의 행이 계속되다가 마지막 ㉢에서는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는 이 작품 전체에서 유일하게 의문형으로 끝맺지 않은 문장이다. '나'는 '임'의 밤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태우는 등불이다. 여기서 '밤'은 '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어둠의 시간이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진 괴로운 시대에 해당한다. 이 어둠의 시대에 '나'는 자기 자신을 태워서 어둠과 싸우며 '임'이 사라진 세상을 조금이나마 밝히고자 한다. 그 불태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는 지속적인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임의 부재 속에서 참된 가치를 찾아 정진하는 구도자적 자세가 담겨 있다.

④ ㉣에서 화자는 삶을 너무 멀리서 보아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서 보아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바람직한 삶의 관점은 두 관점을 모두 취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17 ④ 현대시-작품의 비교

④ (가)에는 자연 현상 속에서 '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임(절대자)'에 대한 구도(求道)적인 자세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가)와 달리, (나)에는 구도적인 자세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시적 화자는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오동잎'을 '발자취'로, '푸른 하늘'을 '얼굴'로, '향기'를 '입김'으로, '시냇물의 소리'를 '노래'로, '저녁놀'을 '시(詩)'로 형상화하여 '임(절대적 존재)'을 예찬하고 있다.

② (가)는 의문형 경어체 종결형 문장으로 간절한 물음, 정성스러운 기원의 어조, 절대자나 진리 추구의 명상적이고 관념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라본 세상과 인간 삶의 모습(1~8행)과 속초와 원통에서 바라본 세상과 인간 삶의 모습(7~17행)을 대조하여,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 삶에 대한 깨달음(18~20행)이 드러나 있다.

18 ① 현대문법-품사

㉠의 '무슨'과 ㉡의 '모든'은 각각 뒤에 체언 '말'과 '사람들'을 꾸며 주고, 형태 변화(활용)를 하지 않으니 어미가 없고, 조사와도 결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에서 설명한 관형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의 '빠른', ㉣의 '아름다운'은 각각 기본형이 '빠르다', '아름답다'로, 형태변화(활용)를 하는 단어이므로 품사는 용언이다. 현재진행형 어미 '-는다/-는다'와 결합하지 못하는 형용사이다. 참고로, 두 단어의 모두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뒤에 체언을 꾸며주므로 문장성분은 관형어이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2월 22일 법원직 9급 ②책형

2020. 02. 22. (토)

담당 교수: 송 운 학

19 ① 비문학-서술상 특징

① 제자인 도응(桃應)과 선왕의 질문에 맹자의 답변 형식과 순(舜)과 고요(皋陶), 무왕과 주왕 등의 사례를 활용하여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체형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맹자가 답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 내용으로서,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 ④ 맹자는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말하지 않았으며, 문제점에 대해 분류도 적절하지 않다.

20 ① 비문학-글쓴이의 의도

마지막 단락 ‘양혜왕장구 하(梁惠王章句下)’에서 무왕은 주왕의 신하였는데, 맹자는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한 사내인 주(紂)를 죽였다는 말은 들은 일이 있지만, 무왕이 자기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홍포하고 잔학한 인간’은 천자(통치자)로서의 자격과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紂)를 죽인 것은 임금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임금이 포악하고 무도하여 백성을 해치는 경우는 통치자로서의 자격과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임금을 벌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오답 풀이]

- ② 둘째 단락의 ‘진심장구 상(盡心章句上)’에서 맹자는 ‘순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자기가 차지했던 천하를 헌 갚신 버리듯 버리고 자기 부친인 고수를 등에 업고 도망쳐 멀리 바닷가로 피해 가 살며’라고 하였다. 즉 자식의 의무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
- ③ 셋째 단락 ‘진심장구 하(盡心章句下)’에서 ‘임금’의 비중이 가장 가볍다고 했고, ‘발일하는 사람들’ 곧 백성들의 마음에 들면 천하를 통치하는 천자가 된다고 하였다.
- ④ 첫째 단락의 ‘진심장구 상(盡心章句上)’에서 맹자는 법령을 정비하여 물샐틈없이 잘해 나가는 정치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그것보다는 예의염치(禮義廉恥)와 효제충신(孝悌忠信) 등을 체득 실천하도록 잘 가르쳐 백성들이 나랏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조하게 하는 것이 나라다스리는 데는 더욱 좋다는 것이다.

21 ④ 비문학-내용 유추

첫째 단락의 ‘진심장구 상(盡心章句上)’에서 예의염치(禮義廉恥)와 효제충신(孝悌忠信) 등을 체득 실천하도록 가르쳐 나가는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그 인후(仁厚)함에 감복하여 위정자를 사랑하고, 백성들이 좋아하여 마음으로 따르게 하는 성과를 올리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백성들은 덕을 베풀어도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 가르쳐야 한다’는 ④의 설명은 바르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넷째 단락의 ‘진심장구 하(盡心章句下)’에서 알 수 있다.
- ② 마지막 단락 ‘양혜왕장구 하(梁惠王章句下)’에서 ‘홍포하고 잔학한 인간은 이미 천하 만민의 부모 노릇을 하는 천자가 아니고’라는 내용에서, 올바른 통치자는 백성들을 부모와 같은 태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셋째 단락의 ‘나라에는 백성이 무엇보다도 귀중하고~발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 그들이 좋아하게 되면 천하를 통치하는 천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22 ① 현대문법-단어의 형성: 파생어

밑줄 친 ‘후자의 경우’는 특정한 뜻을 더하는 접사가 어근 앞에 붙어 새말이 된 파생어이다. ①의 ‘강마르다’ ‘심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사 ‘강-’이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 ② 첫(관형사)+눈(명사)→ 합성어
- ③ 새(관형사)+해(명사)→ 합성어
- ④ 알(동사의 어간)+보다(동사)→ 합성어

23 ② 현대문법-사동과 피동

사동사와 피동사를 구별할 때 일반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면 사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피동사이다. ②에서 ㉠은 ‘시계를 보였다’로서 목적어가 있으므로 사동사, ㉡은 ‘하늘이 보였다’로서 목적어가 없으므로 피동사이다.

[오답 풀이]

- ① ㉠과 ㉡은 모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사동사이다.
- ③ ㉠과 ㉡은 모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사동사이다.
- ④ ㉠은 피동사, ㉡은 사동사이다.

24 ④ 현대문법-어휘의 의미관계: 반의어

④ ‘있다 - 없다’는 한 단어의 긍정이 다른 단어의 부정을 함의하는 상보(모순) 반의어이다. 즉 공유하는 의미 영역(정도나 등급)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일어나는 말이다.

[참고] 반의어: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

1) 등급 반의어: 판단이 주관적이고 두 말 사이에 다양한 정도(중간 상태, 등급)가 있을 수 있다.

예) 춥다-덥다, 많다-적다

2) 관계 반의어: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

예) 두둑-고랑, 오른쪽-왼쪽, 주다-받다

3) 상보(모순) 반의어: 공유하는 의미 영역(정도나 등급)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일어나는 말이다.

예) 처녀-총각, 죽다-살다

25 ④ 어문규정-한글맞춤법

④의 ‘부스러기’는 잘게 부스러진 물건이나 쓸 만한 것을 골라내고 남은 물건을 뜻하는 명사로서, ‘부스러거리다’나 ‘부스러하다’로 쓸 수 있는 의성어 ‘부스러’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부스러이’로 적지 않는다. ‘부스러기’는 제23항의 [붙임] 규정에 따라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으로서, 어근의 본뜻이 인식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형태를 밝히어 적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동그라미’에서 ‘동글’은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이므로 ‘-아미’가 붙어서 된 명사이므로 제23항의 [붙임] 규정에 따라 ‘동그라미’로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 ② ‘빠죽이’의 어근 ‘빠죽’은 ‘빠죽거리다’는 말이 있으므로 제23항의 규정에 따라 원형을 밝히어 ‘빠죽이’로 적는다.
- ③ ‘매미’와 ‘빠꾸기’의 어근 ‘매’와 ‘빠꾸’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므로 [붙임] 규정에 따라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